

돌싱녀 32% “전 남편 가장 역할 제대로 못 했다”

돌싱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전 남편이 ‘가장’ 으로서 부족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의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라가 지난 7-12일 재혼을 희망하는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한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상대의 역할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성의 32.6%가 ‘가장의 역할’ 을 꼽았다.

이어 ‘남편 역할’ (29.1%) ‘사위 역할’ (20.2%) ‘아버지 역할’ (18.1%) 순으로 전 남편에게 아쉬웠던 모습을 꼽았다.

남성의 경우 ‘아내 역할’ 이 가장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며느리 역할’ (27.1%) ‘주부 역할’ (24.9%) ‘어머니 역할’ (14.7%) 등이 이었다.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서로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남성 돌싱은 ‘동업자’ (34.1%)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여성은 ‘직장의 상사와 부하’ (33.3%)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남성은 동업자에 이어 ‘학교 선후배’ (28.3%) ‘직장의 상사와 부하’ (20.2%) ‘손님과 점원’ (1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동업자’ (27.1%) ‘손님과 점원’ (20.6%) ‘학교 선후배’ (13.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연인’ 으로 답한 비중은 남성이 6.2%, 여성은 5.8%에 그쳤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생활의 성공 여부는 부부가 서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라며 “상대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애정이 느껴지도록 상대를 대해야 진정한 부부가 된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 으로 여성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 31.0%, 남성은 ‘상대를 과소평가했다’ 가 30.6%의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은 ‘상대를 너무 믿었다’ (26.4%) ‘상대를 건성으로 대했다’ (18.6%) ‘상대를 과소평가했다’ (16.7%) 등 순이었고 남성은 ‘상대를 건성으로 대했다’ (24.0%) ‘상대에게 고자세였다’ (20.2%)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17.4%) 등 순이었다.

이경 비에나라 총괄실장은 “배우자감을 찾을 때 남성이 능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아내를 알잡아 보는 현상이 빈번하다.”라며 “여성 중에는 남편을 제3자와 비교한다거나 잔소리를 일삼아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분석했다.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대를 대하는데 있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일까? 남성 29.1%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 이라고, 여성 32.2%는 ‘좀 더 상냥하게 대할 걸’ 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남성은 ‘좀 더 격의 없이 대할 걸’ (25.2%),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21.3%), ‘좀 더 상냥하게 대할 걸’ (16.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25.2%),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할 걸’ (20.9%),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 (14.3%)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shutterstock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MART** 옆

HOWARD DRUGS

·깨끗한 시설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

세리토스, 실비치, 싸이프러스, 롱비치, 하와이언 가든, 다우니

30년 병원 임상경험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Del Amo Bl. + Pioneer Bl.)

하워드 약국
562-866-6011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JSK 건축, 플러밍



물
새
요
:

Lic #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

제이킴

714.249.5469



CHAPMAN CARE CENTER
Skilled Nursing and Sub-Acute Facility

채프먼 케어센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양병원








가든그로브와 에너하임의 경계에 위치한 채프먼케어센터는 99개의 침대를 보유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준급성의 시설로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HMO, PPO 보험 받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캐시 플랜도 제공합니다.

<p>전문 간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전문 간호사 케어 단기 재활 치료 및 장기 치료 링거 투여 (정맥 치료) 튜브 음식 투여 관리 전문 상처 관리 비경구영양, 정맥영양 당뇨병 관리 투석전우관리 근육경축/부족 통증 치료 및 관리 회복간호지원 프로그램 제공 	<p>채프먼의 특별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실 및 2인 1실 제공 전문 영양사의 전문 메뉴와 식습관 관리 일상 생활 프로그램 지원 모든 방에 TV와 인터넷 제공 마용과 이발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종교 서비스 파워 휠체어 관리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게임과 특별한 메뉴 제공) 	<p>추가 특별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서비스 (처방약 포함) 각종 검사와 방사선 검사 전문 영양사와 영양 상담 치과, 청각, 검안과, 발 전문의 서비스 심리학과, 정신과 서비스 제공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 제공 위탁 간호 서비스 제공
<p>재활 치료 서비스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언어와 언어 치료</p>		
<p>준급성 치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숙련된 간호 및 재활 서비스 포함 오음 치료 기관절 절개 치료 인공 호흡기 관리 및 치료 		



CHAPMAN CARE CENTER
Skilled Nursing and Sub-Acute Facility

12232 Chapman Avenue, Garden Grove, CA 92840

채프먼케어센터

Tel: 714.971.5517 Fax: 714.971.5701

한국인 담당/ Faith Kim (페이스킴)

714.469.5720

faithk@chapmancare.net

입원/퇴원 수속에 관한 문의는 연중 무휴 팩스 가능